

한국 식품 수출액, 3년 연속 최고치 갱신!

해외에서의 K푸드 판매호조

한국의 2018년 식품수출액은 전년대비 2% 늘어난 93억 달러(약 1조엔)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. 일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'2019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 1조엔'을 한국이 한발 먼저 달성한 셈이다. 일본 뿐 아니라 중국, 동남아시아, 유럽, 미국 등에서도 해외 판매 비중을 늘리는 등 K푸드에 대한 인기는 전세계적으로 뜨겁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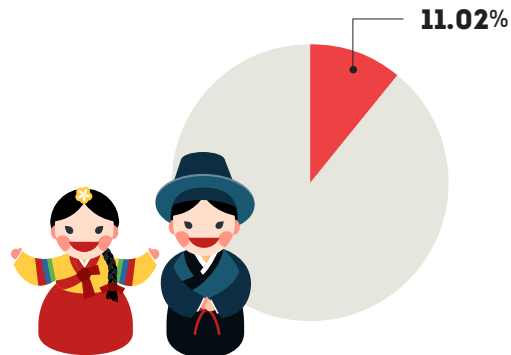
재외한국인 증가와 한류열풍 여파

K푸드 호조의 배경으로는 재외한국인의 증가가 있다.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2017년 기준 약 743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.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공장을 갖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2009년 대비 약 50% 정도 증가했다. 현재 일본에는 82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. 안정적인 교민시장이 형성되어 있을뿐더러 지리적인 이점 및 유사한 식문화를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이와 더불어 K-POP 및 K-Drama 등 한류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 연령대를 불문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.

| 재외동포 중 재외교포 인구현황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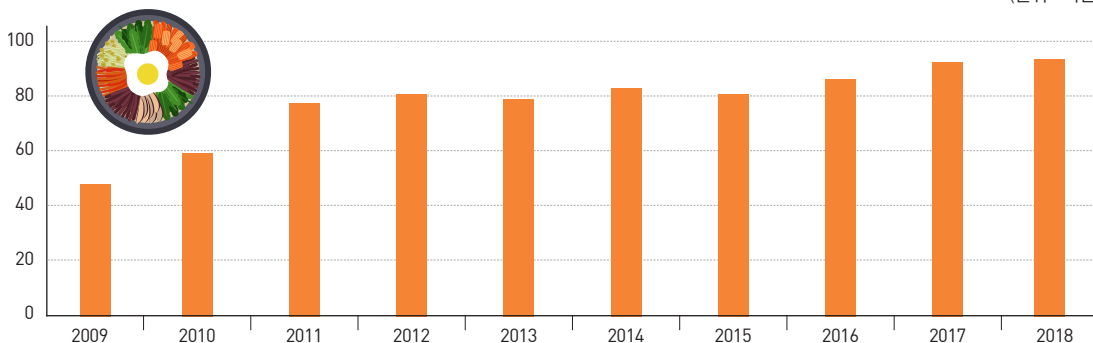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연도별(년)	지역별	총계	 일본
2011		7,175,654	913,097
2013		7,012,917	893,129
2015		7,184,872	855,725
2017		7,430,688	818,626
백분율(%)		100	11.02



| 한국 식품 수출액 |

(단위 : 억엔)



한국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, 일본

우리 농산품의 주된 수출시장인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한국식품은 바로 참치다. 참치 전체 수출액의 1/3 이상에 해당하는 참치가 일본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참치는 황다랑어·가다랑어 등 냉동 참치인데, 주로 스시용 횡감으로 공급되고 있다. 관광지를 중심으로 중저가 회전초밥 가게가 늘면서 덩달아 한국산 참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 파프리카의 점유율도 압도적이다. 일본 파프리카 수입량의 80%를 한국산 파프리카가 차지하며 아삭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로 일본에서 건강채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 경쟁국을 제치고 지금까지 줄곧 일본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. 한국식품 수출에 대해 정통한 일본의 한 전문가는 “일본은 고품질이며 단가가 높은 식품에 강세를 보인다. 면 종류나 대중 주류의 수출이 많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다”고 하였다.

| 일본 슈퍼마켓에서 인기있는 한국식 반찬과 김밥 |



| 신오쿠보 슈퍼마켓에 가득 진열된 한국 주류제품 |



Key Point

수출액은 늘고 있지만 성장이 필요하다

최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타 산업으로까지 파장이 미칠까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식품업계의 경우 현재까지 대일본 수출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. 정부도 중소식품회사와 현지기업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 검사나 해외 인증취득 및 현지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.

한류를 선호하는 10~2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, 소셜 네트워크서비스(SNS) 및 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지속하여 냉각된 한일 관계 속에서 시장 유지에 힘 써야 할 필요가 있다.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고품질 및 단가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.

| 일본인들이 즐겨찾는 오푸기 리얼치즈라면과 롯데제과 말랑카우 |

